스태프가 관객?…텅빈 객석에 초라한 '월드 뮤직 페스티벌'

ACC 재단, 5일간 30여팀 공연…야외공연 객석 점유율 20%도 안돼
무더위·과도한 국악 장르 흥행 참패 요인…빅도어 스테이지는 호응

지난 8월 30일~9월 1일 ACC 일원에서 '2024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다. 31일 공연이 한창이지만 자원봉사자, 스태프 외에는 객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

ACC재단이 주관하는 '2024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월페)'가 지난 30일부터 9월 1일까지 ACC 예술극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빅도어(극장1), 월드 스테이지(극장2), 열린마당 등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스페셜 스테이지(원효사)를 포함해 총 5일간 30여 팀이 참여한 대규모 공연 축제였다.

하지만, 올해 '월페'도 지난해에 이어 겉만 화려할 뿐 내용은 빈약한 축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지만, 일부 행사장에는 손에 꼽을 만큼의 관객만이 자리해 글로벌 음악축제라는 이름을 무색게 했기 때문이다.

한낮 기온이 섭씨 32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록밴드 '렛가일'은 105데시벨 음향으로 야외무대 근처 시민을 '현혹'했다. 현장에는 10분 동안 150여 명이 지나갔으나 이중 관객으로 전환된 이는 단 두 명. 250여 야외 객석은 자원봉사자 7명, 스태프 10여 명만이 자리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인디밴드 '모노플로', '엑시즘'이 무대에 오를 때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재방문한 이튿날 객석 점유율도 20%가 채 되지 않아 보였다.

'월페' 브랜드 자체가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어서다.

ACC재단에 따르면 3일 평균 종합 객석점유율은 65.2%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오전 공연은 신예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흥행 참패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무대인 야간공연 '빅도어 스테이지'마저도 군데군데 공석이 보였다. 무대 간 객석 점유율 편차도 커 공연 간 시너지를 일으키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 2일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분석한 결과 행사 3개월 전부터 포탈에 월뮤페를 입력한 '검색량 수'는 개별 아티스트 검색량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15회를 맞은 월페가 브랜드로 자리잡기보다 초청 공연자의 휴먼 파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국악 장르 중심의 레퍼토리 편성이 흥행 부진의 한 요인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음악계 인사 A씨는 "'세계음악 축제'를 표방하는 만큼 대중적인 레개, 플라멩코, 집시, 발칸음악 등 장르를 적절히 섞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판소리를 기반으로 월드뮤직을 아우르는 '전주 세계 소리축제' 등과 큰 변별성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에도 추다혜, 박다울X박우재, 백다솜, 오오(강권순 등) 등 수많은 전통 예술인들이 무대를 장식했다. 지난해에도 Project tHinG, 소리꾼 이나래, ACC PAN(박애리), 헤이 스트링, 첼로가야금, 뮤직그룹 세움 등 국악예술인들이 출연했다.

주최 측은 출연진을 '세계가 주목하는 음악가', '전설' 등 화려한 수사로 소개했으나 그들의 음악적 아성이 행사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행사 일수와 출연진을 줄이더라도 라인업을 조밀하게 구성해 '외화내빈'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필요성이 2년 연속 제기된다.

이 같은 '차림'에 비해 출연진들은 분전하는 모양새였다. 현악 주자 박다울과 박우재는 크레셴도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곡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생소한 전통악기 카만체를 연주하는 카이안 칼호르 트리오의 공연도 이목을 끌었다. 동양의 아쟁을 빼어 닮은 소리에 어우러지는 병풍 세트, 분위기는 고즈넉한 정취를 선사했다.

모로코 전통음악과 변화무쌍 일렉트로닉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 '엘레멘츠 오브 바라카'가 무대에 오를 때에는 관객들의 환호성도 들려왔다. 이들은 사이키델릭한 감성으로 자신들의 음악적 가능성을 증명했다.

한 관객은 "알 수 없는 라인업이지만 마니악한 매력이 있다"는 후기를 남겼다. 그러나 월페는 퓨처 베이스, 트로피컬 등 서브 장르 기반의 마니악한 축제를 기치로 내걸지 않기에, 이 같은 호평 자체도 생각할 여지를 준다.

음악계 인사 B씨는 "'카이한 칼호르 트리오' 등은 물론 거장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예술가들이지만, 현장 관객들이 그것을 인지할 때 '거장'일 것이다"며 "월페가 대중음악과 세계 음악의 간극에서 고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부대행사인 '악기 워크숍',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곁가지를 정돈하는 결정도 필요해 보였다. 주 역할 중 하나가 '동원 관객'이던 월페반디(봉사자)도 홍보 역을 보충하거나 재편성하는 것이 나아 보였다.

한편 문체부로부터 ACC재단이 교부받은 이번 축제 예산은 총 7억5000만원이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가맹제한업종 40종 중 12종 해제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사용 예정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의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연합뉴스

한총리 "물가 안정되기 시작…금리 인하 여지 생겨"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여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 물가가 2% 정도로 전년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거시 정책으로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댈 수 없다. 그러나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를 언급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작년 8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총리는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 내수·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받아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의 의료 개혁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기업, 신규채용 안하는데 퇴직도 안한다

128개사 분석…인력정체 심화

주요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기존 직원 퇴직까지 줄면서 인력 정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및 퇴직 인원을 공개한 128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작년 신규 채용 인원은 총 16만5961이었다. 2022년의 21만717명보다 21.2% 줄고, 2021년의 18만7673명보다도 11.6%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을 줄인 곳은 조사 대상 기업의 63%인 81개사였고, 신규 채용을 늘린 곳은 37%인 43개사에 그쳤다.

반면 퇴직하는 기존 직원은 줄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퇴직 인원을 공개한 88개사의 지난해 퇴직률은 6.3%로 2022년의 7.8%, 2021년의 6.8%보다 낮아졌다. 퇴직 인원은 지난해 총 7만1530명으로 전년의 8만8423명보다 1만6893명(19.1%) 줄었다.

또 채용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인력 경직성이 심화하는 추세가 드러난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신규 채용은 2021년 8만394명에서 지난해 7만2476명으로 7918명(9.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세 이상 채용은 6114명에서 9457명으로 3034명 늘어 54.7%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에서 경력직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방증이라고 리더스인덱스는 해석했다.

신규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IT·전기전자다. 2021년 7만645명을 채용했는데, 2023년에는 2만5205명 감소한 4만5440명을 새로 뽑았다. 이 기간 이차전지(1만9151명→1만413명), 유통(1만3201명→8977명), IT(6442명→4759명), 상사(3672명→2059명), 석유화학(1만593명→9099명) 등의 업종에서 채용 감소 폭이 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청산종결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08월 01일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4년 10월 21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9월 4일

인영식품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장운길 108-20
(장등동)
청산인 진 영 범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259-5, 산291, 산292, 산293-1, 산297, 산298, 산299, 산300, 산301, 산302, 산303, 산304.
2. 분묘기수 : 32기 (봉두리 산299번지 8기 추가확인 포함.)
3. 분묘유형 : 유, 무연분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인근봉안당 안치10년)
6. 안치장소 : 영락공원내 추모의집(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번지)
7. 개장사유 : 토지사용권 행사 및 개발행위
8. 신고처 : 김용주(010-2266-8209)
9. 신고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
10. 기타사항 : 위 지번내에 봉분 망실등과 잡풀이 우거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본 개발행위 시행 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등)에 대하여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9월 4일
위 공고인 주식회사 동신에스유

분할합병공고

2024년 9월 3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동국 (이하"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태조이엔지(이하"을")와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께서도 동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갑" 주식회사 동국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299번길 16
(세하동)
사내이사 조 유 숙

"을" 주식회사 태조이엔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213호
(호계동, 금정역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이사 정 하 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금부전력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송화(이하 "을"이라 함)는 2024년 09월 03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4년 9월 4일

"갑" 금부전력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200111-057523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학천로 994
대표이사 김 유 광

"을" 주식회사 송화
(법인등록번호 : 205911-0038988)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22, 1층
대표이사 윤 지 현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텃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24억(융자 6억 5천) 인수가 17억 5천
010-3646-8700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한소연(710708-2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양일로 55, 103동 1703호 (연제동, 현대아파트)

피상속인 망 한소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느단641호로 신청하여 2024년 8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4일

• 상속인 : 1. 한영숙(470915-2XXXXXX)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50, 1606동 2201호 (상동, 사랑마을)
2. 한영옥(510108-2XXXXXX)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잠평1길 25-15
• 신고기간 : 2024. 9. 4. ~ 2024. 11. 14.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한영숙의 주소

자본감소(임의유상 소각)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유한회사 가등전력 (이하 "당사")은 2024년 09월 02일 개최된 임시사원총회에서 당사 자본금의 총액 금 225,000,000원을 금 157,000,000원으로 감소하고(감소되는 자본금의 액: 금68,000,000원) 출자 1좌당 금 10,000원의 출자지분 6,800좌에 대하여 희망하는 사원으로부터 1좌당 금 82,902원에 유상 양도받아 이를 소각하는 방식(임의유상)으로 출자좌수를 22,500좌에서 15,700좌로 감소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들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유한회사 가등전력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의촌길 22
대표이사 김 미 순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3-6836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충 장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3-6836 •백 운 651-1833 •봉 선 673-6836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산행안내

9월7일(토)

▲광주호산회 9월 7일(토)[제678차]정기산행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 05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5시 40분 진월동 육교 밑 05시 50분 백운우체국 06시 롯데백화점 06시 10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